

이재명·윤석열 수도권 민심 잡기...부동산 대격돌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문 정부와 차별화 정책 제시 윤 “중부세·양도세 대폭 손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정’ 질타

치열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7일 최대 승부처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격돌했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 핵심 정책 이슈인 부동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표심 확보에 전력투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강남 지역을 순회한 데 이어 이날에는 강북을 중심으로 열세 국민인 서울의 판세 전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있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약속하며 여론에 실망한 민심 돌려 세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광화문 청계광장 앞 유세에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자리에서 출발을 들었고,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완벽한 무혈혁명을 이뤄냈다”며 “3월 9일에는 이 변화의 역사를, 이 도 또한 국민의 열망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수에 국정이 휘둘리면 되겠다. 정치보복을 내놓고 후보가 바라는 그런 상황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나”라며,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무속 논란’을 거듭 비판하는 한편 ‘춧발’을 소환하고 정권 재창출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노원구 롯데백화점 앞 유세에서는 “재산세, 중부세 과도하게 올려간 것을 차츰차츰 조정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역 의원들과 함께 엄지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분이 좋은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서울 107만호 공급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상향 등의 공약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성동구 마포구로 이동, 지지를 호소한데 이어 저녁에는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청년 대상 집중 유세를 펴는 등 이날 하루 빼곡한 서울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날 경기 안성부터 용인, 성남, 서울 송파와 서초, 종로까지 6곳에서 집중적인 거점유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특히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의 본거지인 성남을 찾은 윤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

론하며 “인구 100만의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5000만호의 대한민국을 운영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다”고 직격했다. 안성 중앙시장 유세에서는 ‘위기에 강하고 경제에 유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의 선거 슬로건에 대해 “불법에 유능하다는 것인가. 위기는 누가 만들었나. 민주당과 이 후보가 만든 위기인가”라고 비교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유세에서는 “월급 타서 이 정부 세금 내기 바쁘다.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놨다. 과표도 올라갔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이 반복대선 안 된다. 철 지난 이념으로 끼리끼리 대한민국을 맡아먹고 국민을 약탈하는 세력을 이제 내몰아야 한다”고 외쳤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 인근 사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후보는 이날 수도권 유세에서 서울 50만호를 포함한 수도권 130만호 공급,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집권 시 부동산 정책 비전도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유세차 사고에 따라 선거운동을 중단한 채 이날도 사고 희생자들의 빈소를 지켰다.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소강 국면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날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빈소에서 조우하며 정서적 교감을 나눈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 후보 간 담판도 가능하리라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 후보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 선거운동 재개를 논

의할 것이라며 자진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울산을 방문해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조선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선업노동자연대(이하 조선노연)’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선도해온 조선업 노동자들이 이번 대선을 노동이 당당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선거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심 후보는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 간담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출퇴근 인사,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차담회 등 노동자들에게 관련 정책과 공약을 어필하는 일정을 잇달아 소화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선 ‘호남 대전’ 뇌관으로 떠오른 ‘광주 복합쇼핑몰’

윤석열 후보 유치 공약 제시

민주당·소상공인 단체 등 반발

국립광주시당 맞짱 토론 요구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문제가 대선 정국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광주 송정매일시장 집중 유세 과정에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V 토론 개최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대선 과정에 지역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17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일대일 TV토론 개최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TV토론 개최 요청의 건’ 공문을 당 대표 명의로 KBS광주 방송총국장과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KBC 대

표이사 사장에 각각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 주제는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로 토론회는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인사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개최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오는 20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은 즉흥적인 공약이 절대 아니다”며 “광주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3주 전 이미 윤 후보에게 직접 보고됐고 정책검토 과정을 거쳐서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6일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광주시민께서는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쇼핑몰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왜 광주만 없나”라며 “(쇼핑몰) 유치를 민주당이 반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만 열면 광주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전국 GDP(국내총생산)가 쪼들”이라며 “수십 년에 걸친 지역 특색이 지역주민에게 한 게 뭐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은 성명을 내고 “윤 후보는 복합쇼핑몰에 대한 허위 주장을 당장 멈추라”면서 “토론의 때와 장소가 매우 부적절하

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역업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논할 때이고 광주가 아니라 국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복합쇼핑몰 유치에 대해 반대할 적 없다”면서 “복합쇼핑몰은 ‘물지마 유치’도, ‘무조건 반대’도 답이 아니다. 다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과 공존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乙) 지기는 민생실천위원회도 “소상공인·지역업자 피해를 훌리게 하는 복합쇼핑몰 유치가 광주 발전 공약이냐”면서 윤 후보의 공약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후보는 중소기업 생존권 위협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망언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에는 이미 대기업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이 과하게 입점했다. 윤 후보는 광주시민의 돈 벌 일자리를 제시하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앞서 16일 광주시상인연합회도 “전통시장 앞에서 전통시장 말살 정책 발언에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년여만에 국민의힘 복당 이정현 전 의원 代聽人 자처하며 윤석열 후보 조용한 지원

〈대청인〉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한 이정현(사진) 전 국회의원이 ‘대청인’(代聽人)을 자처하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을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지난 2월 9일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5년 36일만의 복당이다. 그가 복당 이후 첫 공식 행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2일 윤 후보의 순천 방문 때였다.

그는 순천에서 윤 후보를 만나 “대통령 되면 호남 인재들이 인사차별 걱정하지 않도록 탕평 인사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불끈쥐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의 직책을 모두 거절하고, 본인만의 조용한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후보와 당 대표를 대신해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듣는 ‘대청인’(대신 듣는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의 소리를 듣고 선대위 정책 공약팀에 건네고 있고, 만약 집권하게 되면 이것은 지역의 요구들이

향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최근 3일 간 순천과 고흥, 담양, 전북 등을 돌며 농업인과 중소기업 대표, 학계, 젊은이들, 지역업자들을 만나 각 분야의 현안 등을 듣고 있다. 이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순천에서 재선의원을 지낸 ‘전박’의 대표로 당 대표도 지냈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http://www.greenfuneral.kr/

光州시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임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VIP전 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터 정희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